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8년 2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경,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210번(나의 생명 드리니)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주고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요한 8,1-11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경을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①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 ② 사순절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순절 신앙 생활표'를 실천한다.
 - ③ 다음 모임을 결정한다.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24(은혜로운 회개의 때)

MEMO

<교리 3>

1. 창조주 하느님(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① 창조 이야기의 바탕

창조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의 타민족들이 창조 신화를 기본적인 자료로 하여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과 인간의 유래나 시간 그리고 그 원인 규명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가를 창조와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천지 창조 때 인간이 참여했던 독특한 위치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다르며, 또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가를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떠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② 창조 이야기의 핵심

* 창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인간 중심으로 시작하고 전개되고 끝맺고 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간에게 세상을 자유의 장소, 삶의 장소로 선사하셨음을 알 수 있다.

* 인간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하느님이 사람을 당신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근본적으로 당신 자신과 관계되는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당신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기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늘 무엇이 생길 수 있는 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인간은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하느님의 응답자인 인간, 이렇게 인간의 고유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창조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을 파악하게 된다.

③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기록이다.

*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유일하신 창조주 이시라는 믿음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고(지혜11,20) 그 질서를 바탕으로 온갖 천체와 동식물을 제자리에 채우심으로써 조화를 이루셨다.

*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설화적인 서술 방법을 사용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창세 2,7) 창조하셨다. 이것은 인간 창조에 쓰인 재료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① 인간의 기원은 하느님께 있고

②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며

③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간 생명은 주권은 하느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경묵상>

죄 없는 자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요한 8,1-11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정의와 자비가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도전 받으실 때 보여 주시는 그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하나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신명 22,21). 이 기사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올라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교묘하게 흥계를 꾸며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 자신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대답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죄를 범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 그분은 자비와 사랑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로마법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습니다(요한 18,31).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선언하실 경우 살인을 선동한 죄로 당국에 고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율법을 무시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마태 5,17-19). 이 두 가지 답변의 선택을 거부한다면 그분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딱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당시의 통상적인 해결책이었던 이혼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혼을 금한 당신 자신의 엄격한 가르침에 모순 되게 될 것입니다(마태 5,32).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응답은 당신의 가르침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음흉한 흥계를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면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단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가 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간음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때의 판결은 죄 지은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단죄하는 판결이 아닌 용서하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나마 핑계 속에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초기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주님 앞에 끌려온 여자는 단죄 받을 것밖에 없는 죄인인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만난 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님은 자비가 넘치도록 풍성하여 가장 심각한 죄까지도 언제나 용서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받은 죄인이 온갖 죄를 피하고 버리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나눔>

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자세와 예수님의 자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움직이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까?

기 도

수행자는 기도로써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산이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우리를 도와준다.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절한 소망이다.
따라서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은 그 울림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진정한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필요없다.
오로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순간순간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진지한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다스려 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필요한 것은 침묵이다.
말은 생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흩뜨려 놓는다.

우주의 언어인 거룩한
그 침묵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게 한다.

어느 인도의 스승은 말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빛장이다.

-백정 잠언집에서-